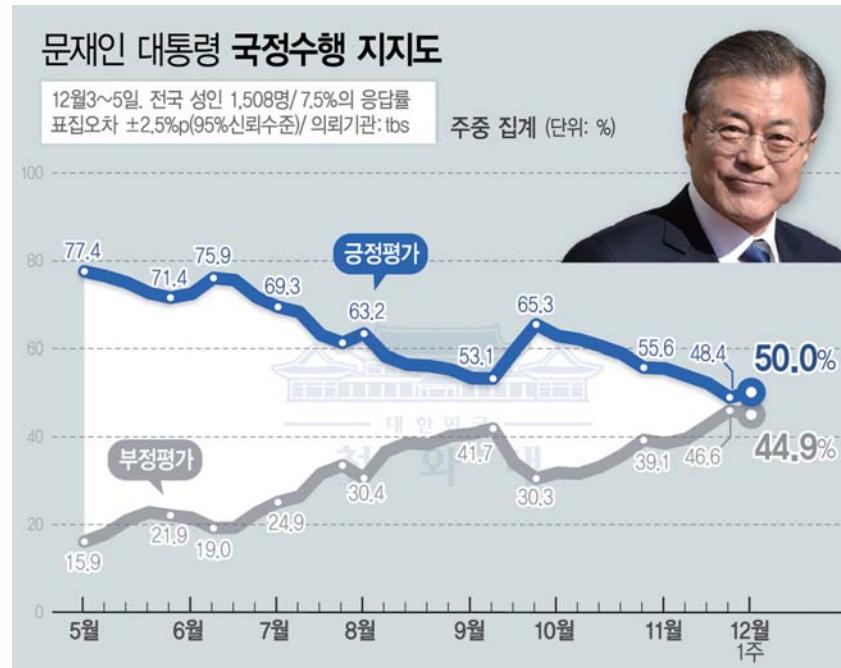


# 文대통령 지지율 50%…하락세 멈춰

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가능성 · 與 조국 관련 공세 오히려 긍정적  
민주 38.4% · 한국 24.4% · 정의 7.6% · 바른 6.8% · 평화 2.6% 順



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50%대로 소폭 반등했다.  
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

tbs 의뢰로 3~5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개한 12월 1주차 주중집계(95% 신뢰 수준 · 표본오차 ±2.5%p · 응답률 7.5%)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%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. 지난주 대비 1.0%p 오른 수치다.

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.7%p 내린 44.9%(매우 잘못한 27.9%, 잘못하는 편 17%)로 나타났다. 모름·무응답은 0.1%p 증가한 5.1%로 집계됐다.

리얼미터는 이번 반등세에 대해 “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보도가 확대되고 ‘조국 민정수석 경질’ 등 야당의 각종 공세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”이라고 분석했다.

세부적으로는 서울과 호남, 40대, 남성, 노동자와 사무직, 정의당 지

지층, 진보층에서 하락했으나, 충청권과 경기·인천, 부산·울산·경남(PK), 30대와 20대, 50대, 60대 이상, 여성, 주부와 학생, 자영업, 무당층, 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달 30일 일간집계에서 48.1%로 마감했던 지지율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보도가 확산되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이 불거진 3일에는 48.9%로 소폭 상승했다.

이어 조 수석 책임론이 야권 중심으로 불거졌던 4일에도 49.7%로 상승했다. 조 수석에게 공직기강 강화 지시를 내린 5일에는 49.8%를 기록했다.

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0.4%p 오른 38.4%를 기록,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. 자유한국당(24.4%), 정의당(7.6%), 바른미래당(6.8%), 민주평화당(2.0%)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.

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뉴스



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, ‘박근혜·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’을 주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제4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.

## 한국당 의원들 “박근혜·이명박 재판 불공정…석방후 진행해야”

### “정치 재판이자 정치 보복”

최근 박근혜·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 작성

을 둘러싸고 친박·비박 간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6일 전직 두 대통령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근혜·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는 실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우 변호사가 참석했다.

윤 의원은 “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”며 “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데도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놓고 재판 진행하고 있다. 두

분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적폐정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 보복”이라고 지적했다.

그는 “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”며 “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이날 강연에 나선 서정우 변호사

는 “양형보다 중요한 게 구속기간 만료 문제인데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(박 전 대통령은)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이 받았을 것”

이라며 “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면 (검찰이) 또 다른 것으로 (영장을)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늘렸다”고 지적했다.

또 재판절차와 관련해서 “저는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 하는 것을 외국에서도 본적이 없다”며 “변호사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다. 출석재판과 신속재판을 구분해야 한다”고 꼬집었다.

서 변호사는 “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이 38년이 나오는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노

전 대통령은 군 관련 12.12와 5.18 내란이고 직접 받은 뇌물이 2700억 원”이라며 “그런데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은 10월도 직접 안 받았는데 33년형이 되느냐”고 지적했다.

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“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”며 “우리나라의 법치가 실종된 것은 문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 집권을 시작한 시점부터다.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여 위원장은 “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제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”며 “그렇게 한 뒤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주호영 의원은 “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이렇게 심각한 혐의에 대한 절차위반을 끊개고 간다는 점에서 인격이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됐다”며 “당에서는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”라고 말했다.

서 변호사는 ‘불구속 재판촉구 결의안’의 효과에 대해 “법적 구속력은 없다”며 “정치적 정도의 의미가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의 모임에서 결의안 작성성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“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”며 “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 데 논의는 없었다”고 말했다.

윤 의원은 서정원 의원이 이에 대해 ‘후안무치’라고 비판한데 대해 “김 의원과 과거 어떤 불신이 있다 보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의심하는데 주호도 그런 게 아니다”며 “그 분도 당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”고 덧붙였다.

## “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, 국민 61.3% 환영”

### 환영(61.3%)이 반대(31.3%)보다 2배 가량 높아
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국민의 61.3%가 찬성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.

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5일 성인 6304명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, 남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는 응답이 61.3%였다고 이날 밝혔다.

‘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

므로 반대한다’는 응답은 31.3%, 모름·무응답은 7.4%로 각각 집계됐다.

리얼미터는 “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·연령·이념성향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분석했다.

지역별로는 광주·전북(79.7%)에서 환영 여론이 가장 높았다. 이어

대전·충청·세종(70.3%), 경기·인천(59.0%), 서울(58.7%), 부산·울산·경남(55.1%)에서도 절반 이상이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대구·경북(49.4%)도 환영 여론이 우세했다.

연령별로는 40대(73.6%)와 30대(65.9%), 20대(61.0%)에서 환영 여론이 60%를 넘었고 50대(59.9%)와 60대 이상(50.0%)에서도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분석했다.

지역별로는 광주·전북(79.7%)에

서 환영 여론이 가장 높았다. 이어

에서 각각 62.0%, 61.0%가 환영 여론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49.6%(환영 36.8%)로 우세했다.

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(98.8%), 정의당(83.4%), 무당층(54.4%)에서 괴이한 환영 여론을 차지했다.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환영 여론이 각각 18.3%, 28.9%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.

이번 조사에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6304명 중 500명이 응답(7.9%의 응답률)했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4.4%p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## 與 “광주형 일자리, 마지막 사회적 대타협 기대”

더불어민주당은 6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단체협약 유예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예정된 조인식이 무산된 ‘광주형 일자리’와 관련, ‘마지막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’고 밝혔다.

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“작은 문제 하나로 협상이 타결되

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”고 했다. 권 대변인은 “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사 상생협력 모델”이라며 “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권 대변인은 “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”며 “정부·여당은 여기에 전폭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. 노

사 상생형 일자리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

이해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“내단히 안타까운 일”이라며 “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.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 대변인은 “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”며 “국민이 성원하고 있다. 노

사 간 벌써 양보해 마지막 타결

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”고 말했다.

### 야호의 꿈

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
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
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
청소년이 마음을 사랑하는 삶  
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
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
마을 주민들이 스스로, 더불어 살아가는 삶

Drawing 이호동

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 
야호센터는 인문·예술·사회참여로 청소년·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.

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.

062-960-6980  
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  
Together Gwangsan